

청소년과 부모의 내외통제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금 명 자[†] 양 미 진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청소년과 부모가 상담에 대한 기대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내·외 통제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들을 요인 분석하여 상담 관계요인, 상담자의 전문성 요인, 내담자의 역할 요인 그리고 상담 성과 요인등 4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청소년들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부모들은 상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청소년들도 부모에 못지 않게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외통제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내적 통제자가 상담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특히 내적 통제를 하는 청소년들은 외적 통제자에 비해 상담 관계와 성과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였고, 부모의 경우 내적 통제자가 상담의 모든 요인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였다. 또한 상담에 대한 기대 중 내담자의 역할에 있어서 청소년/부모와 내외통제성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에게서 내외통제성간에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 청소년과 부모간에 상담에 대한 기대의 차이성에 따른 상담 접근 태도에 대해 논의되었고 내외통제성과 연령이 상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논의되었다.

주요어 : 상담에 대한 기대, 청소년, 부모, 내외통제성

금명자, 양미진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금 명 자,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292-61 흥진빌딩 4층 한국청소년 상담원,
전화 : 02) 2253-3811 E-mail : mjkeum@hanmail.net

청소년들은 생활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또래와 먼저 상의하고 그 후에 부모나 선후배를 찾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1998, 2000), 상담실을 찾아와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이들이 자진해서 상담실을 찾아올 때는 자신에게는 심각하게 지각되지만 남에게 알리기 두려운 신경증적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경우이다. 반면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관리하지 못할 때,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은 상담실을 찾는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상담자들이 자신들보다는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은 상담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생활이나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상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성격 특성인 내외통제성에 따라서 상담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정 상황과 기능에 대한 도식, 인지적 세트 혹은 기대와 계속 이어지는 행동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Titcher, 1909; Tolman, 1932). 상담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동 도식과 구체적 행동 기대가 연결된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상담 시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식과 구체적 행동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 행동한다. 상담에 대한 기대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Tinsley, Workman와 Kass(1980)가 상담에 대한 기대척도(Expectation About Counseling: 약칭 EAC)를 만든 이후이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미치는 영향과 특성을 다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

눌 수 있다. 첫째는 내담자들 혹은 일반인들이 상담에 대해 어떤 기대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고 둘째는 무엇이 이러한 기대 차이를 만드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마지막으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 과정과 상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는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성별에 따라(Hardin & Yaniko, 1983; Kunkel, Hector, Coronado, & Vales, 1989; Sipps & Janeczek, 1986; Subich, 1983; Subich & Cursol, 1985) 상담 경험의 유무에 따라(Subich & Hardin, 1985; Tinsley & benton, 1980), 성격적 특성에 따라(Craig & Hennessy, 1989; Leong, Leong, & Hoffman, 1987; Tinsley Hector Hinson, Holt, & Tinsley, 1990)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Kunkel & Hector, 1989; Yuen & Tinsley, 1981) 상담에 대한 기대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력추구행동(help-seeking behavior)(Parham & Tinsley, 1980; Tinsley & Benton, 1980; Tinsley, Brown, Aubin & Lucek, 1984), 상담과정 지표와의 관계(Al-Darmaki & Kivlighan, 1993), 상담의 지속성(Hardin & Subich, 1985; Hardin, Subich & Holvey, 1988; Yanico, 1985), 상담의 성과(Kazdin & Krause, 1983; Tinsley, Bowman & Ray, 1988; Tracey & Ray, 1984) 등으로 나누어져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장호(1985)가 상담에 대한 기대를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 요인으로 분류하여 소개한 후부터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박애선(1985), 지혜정(1988), 박대한(1988) 그리고 최근에는 김은희, 주은선(2001)등은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연구를 하여 학년 급이 높아질수록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금명자와 이

장호(1991)는 내담자 대학생과 일반대학생들이 보이는 상담에 대한 기대를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는 연구들(강호경, 1992; 권희경과 장재홍, 1995; 김성희, 1995, 김혜경, 1998; 배재현, 1993; 설명주, 1994; 우성희, 1988; 최남희, 1998)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연령이나 학년 급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는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박애선(1985)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였는데, 대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상담에 대한 기대를 하였고 특히 내담자의 동기과 책임성, 상담자에 대한 호감성과 인내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혜정(1988)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내담자의 개방성, 책임성에 대한 기대, 상담 방법의 직면성, 공감성, 즉시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인 김은희, 주은선(2001)은 대체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특히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내담자의 개방성과 동기성, 상담자의 공감성, 지시성, 수용성 및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요약해볼 때, 학년 급이 높아질수록 상담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내담자의 역할, 예컨대 개방성과 책임성, 혹은 동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몇 가지의 상담 기법 혹은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기대 - 공감과 지시성, 직면성 등 - 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연령이나 학년 급이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는 지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내담자의 책임성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였으며 (Leong, Leong, & Hoffman, 1987), 성숙한 사람이 보다 내담자의 참여와 상담의 촉진적 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보다 많이 하였다(Tinsley, Hinson, Holt & Tinsley, 1990)는 결과들은 상담에 대한 기대가 연령에 따른 개념구조나 성격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Craig과 Hennessy(1989)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고를 하였다. 그들은 내담자에 대한 기술적인 변인이나 맥락 변인 혹은 상담 과정변인보다 내담자의 성격구조가 상담에 대한 기대에 관련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Leong, Leong와 Hoffman(1987)의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의사결정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합리적(rational) 의사결정자는 내담자의 책임성을 많이 기대하였으며, 의존적 의사결정자는 상담자의 수용성과 양육성, 지시성을 많이 기대하였고 직관적 결정자는 상담자의 호감성과 전문성, 내담자의 책임성을 많이 기대하였다. Tinsley 등(1990)도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과 상담에 대한 기대가 정적 관계라고 보고하였으며,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이 성별이나 학년 혹은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인보다 상담에 대한 기대를 더 잘 예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재현(1993)은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담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특히 내담자의 책임성과 개방성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한다고 하였다. 반면 단계가 낮은 사람은 상담자의 양육성, 공감성 및 지시성에서 더 높은 기대를 하였다. 권희경, 장재홍(1995)은 내담자의 성별, 문제유형 그리고 불안과 억압 수준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문제유형이 성별보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를 더 많이 설명한다고 하였다.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은 낮은 내담자에 비해 상담자의 지시성, 공감성, 양육성, 전문성, 신뢰성을 더 많이 기대하였으며 억압이 높은 자는 낮은 내담자에 비해 상담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았으며 특히 내담자의 개방성, 상담과정의 즉시성,

상담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의 차별성을 연구한 김성희(1995)는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내담자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보다 많이 기대하였고, 반면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상담자의 지시성과 공감성을 더 많이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내담자의 책임감을, 의존적 의사결정자는 상담자의 수용성을 더 많이 기대한다는 결과들은 Leong 등(1987)의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다. Schaub과 Tokar (1999)는 다섯 가지 성격요인 모델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예컨대, 비교적 합리적인 성격 군집의 사람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참여에 대해 많이 기대하였고, 회의론적인 성격 군집의 사람은 전반적으로 상담 과정의 다양한 방법이나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내담자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약간 높은 정도의 기대를 하였다. 이상을 추구하는 성격, 의존적 성격, 혹은 비판적인 성격 군집의 사람들도 상담에 대한 기대에 각각 차별성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연구된 성격 특성들 -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나 성격 특성, 성숙도,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법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며,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다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변인들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성격 특성은 내외통제성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인이며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에 비해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Rotter(1966)는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지각된 통제 소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내적 통제자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한 사건을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보며 자신이 그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성격 유형이다. 이와 반대로 외적 통제자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한 사건이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한 운, 기회, 재수 또는 자신의 통제나 이해 밖의 어떤 힘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지각하는 성격유형을 말한다.

상담에서도 내담자들의 통제성이 어디냐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내적 통제자에 비해 외적 통제자가 상담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Bryant & Trockel, 1976; Caster & Parrons, 1977; Tobias & MacDonald, 1977), 이는 외적통제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더 많은 순종과 동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Kilmann과 Howell(1974)은 외적 통제자가 치료자의 적극적 개입으로 상담의 효과를 더 얻었으며, 내적 통제자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치료로부터 치료적 이득을 많이 얻었다고 하였다. Abramowitz (1974)는 내적 통제자는 비지시적인 접근에 더 잘 반응하며, 외적 통제자는 지시적인 접근에 더 잘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외적 통제자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외부의 어떤 힘이 강화유발을 결정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Rotter, 1966). 이런 경향의 내담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과 정확한 정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개인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시, 충고, 비평 등을 해주어야 한다(이형득, 1984; Hanson, Stevic, & Waner, 1982). 반면 내적 통제자는 남들이 조정하려 하면 저항하고, 주위 상황을 지각하는데도 자기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기내부의 신념이나 원리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Raymond, 1979; Deysach, 1976). 그러므로 내적 통제자에게는

본인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한 충분한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장혁표, 1986; Corey, 1986; Kilman et al., 1975).

내외통제성과 관련하여 그들이 갖는 각각의 특성과 더 효과적인 상담 방법들을 고려해 볼 때, 내적 통제자는 상담에 있어 보다 자신의 기여를 기대할 것이고 외적 통제자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기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에 의한 차와 일관된 방향으로서, 연령이 높으면 낮은 자에 비해 내담자의 역할과 기여에 보다 높은 기대를 갖으며, 연령이 낮은 자는 높은 자에 비해 상담자의 전문성과 방법에 보다 높은 기대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연령 변인과 또 연령 변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내외통제성'이 상담에 대한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 볼 때, 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할 것이고, 부모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역할에, 청소년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를 할 것이다. 역시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에 비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높이 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담에 대한 기대 요인에 따라 이들 두 변인간에 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대개의 청소년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로 대별되므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을 다루는 상담자들이 그들의 차별적 기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는 하위척도별과 요인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각 집단별로 상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장 많이 하는 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기대는 어떤 것들인지 확인한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가 내외통제성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

를 보이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상담에 대한 기대척도(EAC)는 Tinsley 등(1980)이 개발한 척도로,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의 특성, 상담 과정의 특성 및 성과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18개의 하위척도, 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66개의 문항 중 상담실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성 척도 13개를 제외한 53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4개의 요인을 찾아내었고, 이들 요인들은 내담자의 개인적 참여, 상담자의 촉진적 태도,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자의 양육성들이다.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에 해당하는 척도들이 상담자의 촉진적 태도, 전문성, 양육성, 등으로 구분하여 내담자들의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심지어는 공감은 상담자의 대표적 촉진적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은 전문성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감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문가들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하여 우리나라 내담자들의 상담자에 대한 기대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요인별로 다양한 변인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추출된 요인들을 Tinsley 등(1980)의 요인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내담자들이 갖는 상담에 대한 기대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 525명과 학부모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부모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하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부모들은 58%가 대졸이었고, 나머지는 대개가 고졸자들이었다. 부모들의 79%가, 청소년들은 73%가 상담 경험이 없었다.

측정도구

상담에 대한 기대척도(EAC)

Tinsley 등(1980)이 개발한 척도로 국내의 거의 모든 연구들이 사용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장호와 금명자(1991)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7점 척도의 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문지에서 몇 문항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내적일치도로 확인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내외통제척도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Rotter(1966)의 내외통제성척도를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가 번역하고 문항분석을 통하여 21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내외통제성을 다룬 연구들(강호경, 1992; 박이진, 1999; 배재현, 1993 등)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결 과

상담에 대한 기대 요인

Tinsley 등(1980)은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내담자 특성, 상담자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그리고 상담 과정과 성과들에 대한 1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참여(personal commitment), 상담의 촉진적 조건(facilitative condition), 상담자의 전문성

(counselor expertise) 및 양육성(nurturance)의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장호와 금명자(1991)는 실제 내담자와 잠재적 내담자를 구분하여 요인분석하였고, 이들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간에 상담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Tinsley 등(1980)은 18개의 하위척도 중 현실성 척도문항 13개를 제외하고 요인분석한 결과였고, 이장호, 금명자(1991)는 이를 포함하여 요인분석한 결과였다. 현실척도는 상담실의 특성에 따라 실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항들로, '심리검사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 '훈련 중에 있는 상담자와 상담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등이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 척도를 제외시키고 요인분석 하여 Tinsley 등(1980)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현실성 척도를 제외하 53개의 문항을 직교회전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서처럼 4 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전체 변량의 55.63%이었다. 요인 1의 설명 변량은 19%로, 주로 상담 관계와 상담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솔직성, 신뢰성, 수용성, 자기공개, 양육성, 인내성 등의 하위척도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의 설명 변량은 15.97%로, 내담자의 책임성, 상담자의 지시성, 구체성, 전문성, 공감성들이 포함되어 상담시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상담자와 상담 방법을 기대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3의 설명 변량은 12.03%로, 즉시성, 호감성, 동기성들이 포함되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라고 하겠다. 요인 4의 설명 변량은 8.62%이었으며, 책임성, 성과, 즉시성 등의 상담에 의해 내담자에게 이루어질 성과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요인별 문항과 하위척도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차이

하위척도별, 요인별로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에 대한 기대 점수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최고 점수 7점에서 학부모는 평균 3.989점을, 청소년은 평균 3.411점을 받아 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상담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t=3.339, p<.001$) (표 2). 이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부록 II 표 1), 전체적으로는 상담자의 양육성, 지시성, 구체성, 전문성과 상담 성과 순으로 연결되면서 높은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상담자의 양육성, 지시성, 전문성, 구체성, 인내성으로 이어지고, 부모들은 상담의 성과, 책임성, 양육성, 구체성, 개방성 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4개의 요인별로 이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2), 상담자의 전문적 방법에 대한 기대를 제외하고는 상담 관계($t=-3.303, p<.01$), 내담자의 역할($t=-12.997, p<.001$) 및 성과($t=-6.663, p<.001$)에서 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높은 기대를 하였다. 다시 말해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내외통제성에 따른 두 집단의 상담에 대한 기대

피험자들의 내·외 통제성은 13점 이상, 6점 이하 점수를 받은 자들로 25%의 이상과 이하의 점수에 해당한다. 청소년과 부모 각각에 해당하는 내외통제자들은 표 3과 같으며 부모는 내적 통제를, 청소년은 외적 통제를 각각 더 많이 하였다

표 1. 상담에 대한 기대의 요인분석

요인명	문항	아이겐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상담 관계	40, 42, 44, 45, 46, 48, 49, 51,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6	10.073	19.006	19.006
상담자 전문성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1, 43, 47, 50	8.461	15.965	34.971
내담자 역할	4, 11, 12, 14, 15, 17, 18, 22, 25	6.377	12.032	47.003
상담 성과	5, 8, 9, 10, 13, 19, 22, 23, 28	4.570	8.624	55.626

표 2. 요인별로 본 청소년과 학부모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전체(N=669)		청소년(n=525)		학부모(n=1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담 관계	3.5808	1.2205	3.5260	1.2641	3.9092	1.0173	-3.303**
상담자 전문성	3.8278	1.2469	3.8105	1.2968	3.9866	1.0477	-1.356
내담자 역할	2.7544	1.1139	2.5054	.9859	3.8518	1.0766	-12.997***
상담 성과	3.6627	1.1878	3.5353	1.1872	4.3346	1.0300	-6.663***
전체	3.5042	1.0589	3.4109	1.0676	3.9890	.9510	-5.339***

주. *** $p<.001$, ** $p<.01$

표 3. 청소년과 부모의 통제 소재의 차이

집 단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청소년	65명(12.4%)	159명(30.4%)
부 모	30명(26.5%)	21명(18.6%)

주. ()의 수는 각 집단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이다.

통제자들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II 표 2와 3). 특히 청소년들은 내적 통제자들이 외적 통제자들에 비해 양육성, 직면성, 신뢰성, 인내성, 전문성, 자기-공개에서 더 높은 기대를 하였고, 부모들은 책임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내적 통제자들이 더 높은 기대

표 4. 청소년의 통제 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외적통제		내적통제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 담 관 계	3.2611	1.2003	3.8234	1.4394	-2.461*
상담자 전문성	3.5725	1.1526	3.9830	1.3481	-1.898
내담자 역할	2.4076	.9044	2.5050	1.0809	-.567
상 담 성 과	3.2800	1.1867	3.6998	1.2409	-2.002*
전 체	3.1887	.9461	3.6005	1.1538	-2.265*

주. * $p < .05$

표 5. 부모의 통제 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외적통제		내적통제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 담 관 계	3.4366	.7626	4.3302	1.0500	-3.927***
상담자 전문성	3.5924	.8443	4.3762	1.1223	-3.179**
내담자 역할	3.4559	.8781	4.1900	1.0169	-3.100**
상 담 성 과	3.9788	.9989	4.6102	.9881	-2.536*
전 체	3.5704	.6902	4.3624	1.0005	-3.722***

주. *** $p < .001$, ** $p < .01$, * $p < .05$

($\chi^2 = 16.321, p < .001$). 각각 내·외 통제성에 해당하는 자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하위척도별로 그 차이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과 부모 공히 내적

를 하였다.

내외 통제성에 따른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에 대한 요인별 기대 차이를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청

표 6. 청소년/부모와 통제소재에 따른 내담자 역할의 차이 검증

	SS	df	MS	F	Sig.
Corrected Model	84.652	3	28.217	27.185	.00C
Intercept	1523.475	1	1523.475	1467.955	.00C
통제소재	7.648	1	7.648	7.37C	.007
청소년/부모	62.52E	1	62.52E	60.245	.00C
상호작용	6.825	1	6.825	6.576	.011
Error	281.25C	271	1.038		
Total	2426.715	275			
Corrected Total	365.902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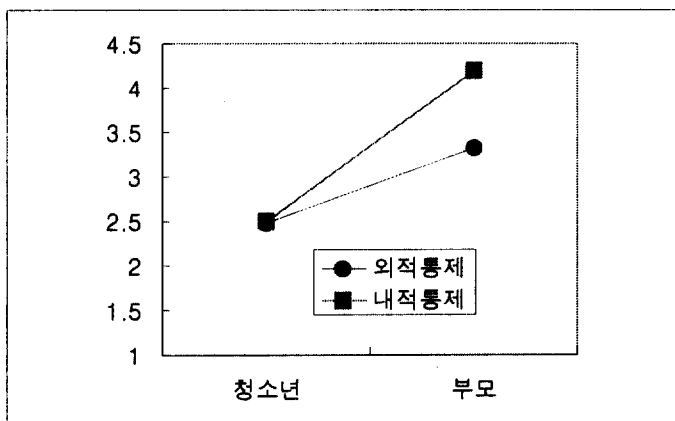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부모의 내외통제에 따른 내담자 역할에 대한

소년은 관계 특성($t_{133}=-2.461, p<.05$)과 상담의 성과($t_{133}=-2.002, p<.05$)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내적 통제 집단이 더 높았으나, 부모들은 표 5에서와 같이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보다 상담에 대해 모든 요인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t_{63}=-3.722, p<.001$). 청소년과 부모, 내외통제성간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 요인별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더니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에 있어서 내외통제간에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과 부모가 상담에 대한 기대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그 기대들이 내·외통제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가 연령과 성

격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더불어 상담 접근방법들도 달라져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에 대한 기대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과 부모들의 요인별 상담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고, 내외통제성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네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담관계에 대한 기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및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들이다. 첫 번째 요인인 '상담 관계에 대한 기대'는 솔직성, 신뢰성, 수용성, 자기 공개 등과 같은 하위척도 문항들이 포함되어 상담자의 촉진적 태도를 통한 관계 형성을 기대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요인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로 책임성, 지시성, 구체성, 전문성, 공감성과 같은 하위척도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변화를 책임지고 보다 주도적으로 상담을 이끌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공감성은 상담자의 대표적인 촉진적 태도이지만 내담자들은 '내담자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해줌으로써 그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 등의 공감성은 전문 훈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하위척도 즉시성, 호감성, 동기성들이 포함되어, 내담자가 상담시간에 경험하게 될, 혹은 내담자가 해야 할 일이나 경험 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는 책임성, 개방성, 즉시성, 성과성들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지게 될 것'과 같은 상담이 종료되었을 때 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대들은 금명자, 이장호(1991)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대한 기대 요인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Tinsley 등(1980)의 EAC 전체 문항 66개를 요인분석

한 결과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 하위척도를 제외한 53문항을 요인분석하였기 때문에 요인들이 보다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과 태도를 우선적으로 크게 기대하였으며,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따로 요인화된 것들은 Tinsley 등(1980)의 미국 연구결과와는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에 대한 요인에서 상담자에 대한 기대와 상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하겠다(표 7 참조).

이렇게 분류된 상담에 대한 기대 요인별로 청소년과 부모들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를 확인하였다. 우선 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들에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도 부모들처럼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연령 증가에 따른 기대 상승은 상담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들이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동기성, 책임성, 개방성과 같은 상담에서의 내담자의 참여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역할 뿐 아니라 대개의 영역에서 기대가 높아졌다. 오히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청소년이 상담자에 대한 전문성을 이미 높게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상담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 기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연령과는 상관 없이 우리나라 내담자들은 상담자에 대해 전문성을 높게 기대하며, 이러한 전문성은 상담자를 전문직업인으로서 보다는 주도성 혹은 선도성을 발휘하는 선생님, 스승님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한

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부모들 각각에 있어 요인별 기대치를 살펴볼 때, 청소년들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였고, 상담 관계와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고,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다른 기대에 비해 그 정도가 낮았다. 이도 역시 연령에 따른 의존성 혹은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과 같은 상담자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반면 부모들은 상담 성과에 대해 가장 높은 기대를 보였지만 대개의 기대 요인들에서 높은 기대를 보였다. 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연령에 따른 인지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부모들은 자발성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자발성 변인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청소년 집단에서도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높은 기대를 갖는다는 연구들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자발성의 정도와 기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연령에 따른 기대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지만 내외통제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상했듯이 내적 통제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 집단에서 보다 뚜렷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 집단은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에 비해 상담에 대한 기대의 모든 요인에서 높은 기대를 하였다. 반면 청소년은 상담 관계와 성과 기대 요인에서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에 비해 높은 기대를 하였다. 연령(청소년과 부모)변인과 내외통제성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내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요인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청소년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에 상관없이 내담자 역할에 대해 낮게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적 통제자인

부모 역시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 낮은 기대를 하였기 때문인데, 연령에 상관없이 외적 통제자는 상담에서의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성격과 관련한 기대연구에서 성숙할수록 내담자 자신의 개방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고 미성숙할수록 상담자의 지시성과 전문성, 공감성을 높게 한다는 결과들과 관계 있다고 하겠다. 외적 통제자는 자신의 자발적 변화나 노력보다는 외부의 힘에 보다 의지하기 때문에 상담시간에 내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한편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즉시성), 상담에 대해 호감을 가지며(호감성),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는(동기성) 기대 즉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 내외통제성에 상관없이 낮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청소년상담의 특징이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내담자의 비자발성이다. 상담에 임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가 억지로 의뢰한 사례가 많다. 청소년들이 상담자의 지시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내담자의 역할이나 참여가 낮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상담자의 주의를 요구한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에야 비로소 소기의 상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기 종결된다는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상담자의 친절하지만 확고하여 전문성이 드러나는 상담 구조화와 동기화가 청소년상담 과정 중 초기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 500여명과 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피험자 수의 비동일성이 통계처리 어려움 주었고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제약

표 7. 상담에 대한 기대의 요인분석 결과의 비교

연구명	Tinsley 등(1980)	금명자, 이장호(1991)	금명자, 양미진(2001)
대 상	대학생	대학생 잠재내담자	청소년과 부모 실제내담자
1	내 개인적 참여	상 전문적 주도성	상담 관계(촉진태도)
2	상 촉진적 태도	과정과 성과	상 전문성
3	상 전문성	상 인격적 자질	내 역할(참여)
4	상 양육성	상 양육성	상담 성과
5		상 전문적 기술	내 개인적 참여
6			내 동기성

주. '내'는 내담자를 의미하고, '상'은 상담자를 의미함.

이 되었다. 또한 만약 부모들이 피험자인 청소년들의 부모였다면 그들간의 차별성에 대한 정보가 상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용이했을 것이다. 각각 피험자들의 상담 경험의 유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또 다른 제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의 주요 집단인 청소년과 부모를 비교하였으며, 내외 통제성이라는 상담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변인이 상담의 기대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와 연령변인과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호경 (1992). 상담자의 내외통제와 상담방법 및 내담자의 기대수준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희경, 장재홍 (1995). 상담에 대한 내담자들의 기대.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1), 연세대학교, 75-96.

금명자, 이장호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학생연구, 26(1), 1-18.
김은희, 주은선 (2001). 내담자 변인과 상담형태에 따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감 연구. 미간행.
김성희 (1995). 심리사회적 성숙도, 의사결정 유형과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 연구: 내담자 변인과 상담자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경 (1998). 상담경험과 성격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감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대한 (1989). 상담활동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미진 (1999).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애선 (1985).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재현 (1993). 성격유형, 심리사회적 발달정도와

-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명주 (1994). 성격유형에 따른 상담의 기대감과 의 관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성희 (1988).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 성별, 특성, 문제유형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1986).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이형득 (1992).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력표 (1986).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지혜정 (1988). 내담자 변인에 따른 상담기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남희 (1998). 고등학생의 성격유형 및 문제유형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1.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8). 청소년의 동반자살,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1.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0.
- Bryant, A., & Trockel, J. F. (1976).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266-271.
- Caster, D. V., & Parrsons, O. A. (1977). Relation of depression, sociopathy, and locus of control to treatment outcome in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751-756.
- Craig, S. S. & Hennessy, J. J. (1989). Personality correlates of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01-407.
- Corey, G. F. (198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dsworth, Inc. 100-117.
- Deysach, R. E., Hiers, T. G., & Ross, A. W. (1976). Situational determinants of performance on the rotter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2), 303.
- Hanson, J. C., Stevic, R. R., & Warner. (1982). *Counseling : Theory and Process*. Allen and Bacon, Inc, 72-96.
- Hardin, S. I., Subich., & Hovely, J. M. (1988). Expectancy for counseling in relation to premature ter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7-40.
- Hardin, S. I. & Yanico, B. J. (1983). Counselor gender, types of problem,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294-297.
- Kazdin, A. E., & Kranse, R. (1983). The Impact of variation in treatment rationales on expectation for therapeutic change. *Behavior Therapy*, 14, 657-671.
- Kilman, P, R. (1975). Direct and nondirect marathon group therap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5), 380-384.
- Kilman, P, R. & Howell, R, J.(1974). Effects of structure of maraton group therapy and locus of control on therapeutic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912.
- Kunkel, M. A., & Hector, M. A. (1989).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in Yucaton, Mexico: Toward a "Mexican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22-330.
- Leong, S. L., Leong, F. T. L., & Hoffman, M. A. (1987). Counseling expectation of rational, intuitive, dependant decision markers. 261-265.
- Parham, W, D., & Tinsley, H. E. A. (1980). What

- are friends for? Students expectation of the friendship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27-130.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y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Schaub & Tokar (1999). Patterns of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Relation to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177-188
- Ship, G. J., and Janeczect, R. G. (1986). Expectation for counselor in relation to subject gender trai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14-216.
- Subic, L. M. (1983). Expectation for counselors as a function of fee for serv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21-424.
- Subic, L. M., and Coursol, D. H. (1985). Counseling expectations clients and nonclients for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45-251
- Subic, L. M., & Hardin, S. I. (1985). Relation of problem and expectation of counsel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students gender preference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537-543.
- Tinsley, H. E. A., and Benton, B. L. (1978). Expectation and preferenc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97-205.
- Tinsley, H. E. A., Bowman, M. T., and Ray, S. B. (1988). Manipulation of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 psychotherapy: Review and analysis of expectancy manipulation strategies and res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99-108.
- Tinsley, H. E. A., Brown, M. T., Aubin, T. M., & Lucek, J. (1984). Relation between expectation for a helping relationship and tendency to seek help from a campus help provid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49-160.
- Tinsley, D. J., Holt, M. S., Hinson, J. A., & Tinsley, H. E. A. (1990). Level of psychology development perceived level of psychological difficult, counseling readiness, and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examination of group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43-148.
- Tinsley, H. E. A., Workman, K. R., & Kass, R. A. (1980). Factor analysi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61-570.
- Titcher, E. B. (1909). *Lecture on the experimental Psychology of the Thought Process*. New York: MacMillan.
- Tobias, L. L., and MacDonald, M. L. (1977).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weight loss? An insufficient condi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2), 647-653.
- Tolman, E. C. (1932). *Purposive Behavior in Animal and Me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Tracy, T. J., & Ray, P. B. (1924). The stages of successful time limited counseling: An interactional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7)
- Yanico, B. J., & Hardin, S. I. (1985). Relation of Problem and expectation of counsel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students gender preference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97-205.
- Yuen, R. K., and Tinsley, H. E. A. (1981). International and American student's experience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66-69.

원고접수일: 2001. 6. 30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25
게재결정일: 2001. 12. 4

Relation between EAC(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nd Locus of Control in Adolescents and Parents

Myoung-Ja Keum Mi-Jin Yang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age(13 - 14 Y/40 - 50 Y), locus of control, and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the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 administered to 525 teenagers and 114 parents. Through factor analysis, four expectation factors were obtained: counseling relationship, counselor's expertness, client's role and counseling outcome. Teenagers expected more about counselor's expertness, and parents expected more about counseling outcome. For most factors, parents had a higher expectation than did teenager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teenagers for expectation about counselor's expertness. Parents with internal control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parents with external control on all expectation factors. But internally controlled teenagers had a higher expectation on counseling relationship and outcome than external controller. Especially for expectation about client's role,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groups and the locus of control. That is, regardless of the level of locus of control, teenagers had a low expectation about client's rol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tasks of early counseling sessions.

Key Words : EAC(Expectation About Counseling), locus of control

부 록 I

요인분석 결과

상담관계 특징

- 40. 직업인으로서의 상담자가 아닌 '진정한' 한 인간일 (솔직성)
- 42. 나에게 신뢰감을 줄 만한 사람일 (신뢰성)
- 44. 나에게 솔직할 (솔직성)
- 45.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 (신뢰성)
- 46. 나를 상냥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용성)
- 48. 상담자 자신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태도를 내 문제에 연결시킬 (자기공개)
- 49. 나를 지지해 줄 (양육성)
- 51. 때때로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공감성)
- 53.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경할 (솔직성)
- 54.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을 내 문제들에 연결시킬 (자기공개)
- 55. 내가 나아질 때 칭찬할 (양육성)
- 56. 나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직면하게 할 (직면성)
- 57. 상담자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자기공개)
- 58. 사람들과 별 어려움 없이 어울릴 (인내성)
- 59. 나를 좋아할 (수용성)
- 60. 내가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일 (신뢰성)
- 61. 나에 대해 알게 된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할 (수용성)
- 62.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의 차이를 직면시킬 (직면성)
- 63. 조용하고 편한 사람일 (인내성)
- 64. 나에게 실제의 나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차이를 지적해 줄 (직면성)
- 66.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일 (인내성)

상담자 역할

- 29. 상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말 뜻을 물어보게 될 (책임성)
- 30. 상담면접 시간 외에도 내 고민거리에 대해 계속 작업하게 될 (책임성)
- 32.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 지를 설명을 해 줄 (지시성)
- 33. 내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 느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구체성)
- 34.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말해 줄 (지시성)
- 35.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알고 있을 (공감성)

- 36. 나를 도와주는 방법을 알고 있을 (전문성)
- 37. 나로 하여금 문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구체성)
- 38.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 줄 (양육성)
- 39.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해줌으로써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줄 (공감성)
- 41. 내 행동의 어떤 면들이 내 문제들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줄 (구체성)
- 43. 자주 나에게 충고를 할 (지시성)
- 47.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성)
- 50. 어떤 치료 계획이 가장 좋은 지를 결정할 (전문성)

내담자 역할

- 1. 심리검사를 받게 될
- 4.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약간의 경험을 하게 될 (즉시성)
- 11. 상담자와 면담하기를 즐거워 할 (호감성)
- 12. 배울 필요가 있는 몇 가지를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연습하게 될 (즉시성)
- 14. 처음에는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적어도 몇 주간
동안은 상담을 계속 하게 될 (동기성)
- 15. 상담자를 세 번 이상 만나게 될 (동기성)
- 17. 상담자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될 (호감성)
- 18. 때때로 상담이 고통스럽거나 불쾌하더라도 상담을 계속하게 될 (동기성)
- 22. 내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찾는데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도움이 될 (즉시성)
- 25. 어떻게 느끼는 지를 진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자가 편안하게
느껴지게 될 (개방성)

상담 성과

- 5. 내 자신과 내 문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개방성)
- 8.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책임감을 갖게 될 (책임성)
- 9.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해 이야기하게 될 (책임성)
- 10.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솔직하고 정직하게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게 될 (즉시성)
- 13.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성과성)
- 19. 가능한 한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개방성)
- 22. 내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찾는데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도움이 될 (즉시성)
- 23. 상담을 받은 후에는 나 스스로 어떤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성과성)
- 28.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지게 될 (성과성)

부 록 II

표 1.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에 대한 기대의 하위척도별 점수와 차이

기대의 하위척도	전체(N=666)		청소년(n=525)		학부모(n=1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책임성	3.7392	1.2715	3.6468	1.2833	4.2719	1.1331	-4.809***
개방성	3.4750	1.3683	3.3400	1.3879	4.1623	1.1612	-5.893***
동기성	2.7107	1.3429	2.4514	1.2462	3.8216	1.2923	-10.570***
호감성	2.3614	1.2625	2.0552	1.0999	3.6901	1.1425	-14.286**
즉시성	3.1852	1.1959	2.9802	1.1325	4.1469	1.0559	-10.089**
구체성	3.8409	1.4108	3.7779	1.4599	4.1740	1.1933	-2.706**
성 과	3.7654	1.3263	3.6530	1.3616	4.3465	1.0940	-5.091***
수용성	3.3532	1.4791	3.2588	1.5340	3.8319	1.1863	-3.751***
직면성	3.5388	1.3403	3.4575	1.3936	3.9591	1.0945	-3.607***
솔직성	3.6290	1.4378	3.5625	1.4882	4.0161	1.1907	-3.048***
신뢰성	3.5424	1.5177	3.4815	1.5892	3.8889	1.2287	-2.574*
인내성	3.7228	1.4029	3.7028	1.4710	3.9240	1.1263	-1.511
지시성	3.8446	1.4199	3.9132	1.4782	3.6477	1.1936	1.794
공감성	3.6642	1.3779	3.6112	1.4383	3.9474	1.1003	-2.349*
전문성	3.8133	1.4110	3.8075	1.4852	3.9269	1.1199	-0.809
자기공개	3.5776	1.3883	3.5711	1.4479	3.7091	1.1591	-0.953
양육성	3.9671	1.4692	3.9391	1.5309	4.1959	1.2256	-1.677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2. 청소년의 통제 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외적통제(n=69)		내적통제(n=65)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책임성	3.3478	1.2450	3.7577	1.2111	-1.930
개방성	3.1039	1.4380	3.4615	1.5306	-1.395
동기성	2.3889	1.1407	2.3949	1.2691	-.029
호감성	2.0531	1.0457	2.0667	1.1876	-.070
즉시성	2.7560	1.0730	3.1013	1.0925	-1.845
구체성	3.5580	1.3382	4.0154	1.5783	-1.813
성 과	3.3744	1.3205	3.7821	1.3816	-1.749
수용성	3.0483	1.5596	3.4872	1.7301	-1.544
직면성	3.2059	1.3629	3.7231	1.5585	-2.040*
솔직성	3.4275	1.6384	3.7692	1.5612	-1.234
신뢰성	3.2415	1.6208	3.8974	1.7077	-2.281*
인내성	3.3113	1.4466	3.9282	1.6325	-2.309*
지시성	3.7005	1.3911	3.9821	1.5075	-1.124
공감성	3.4469	1.3487	3.7590	1.5338	-1.253
전문성	3.5242	1.3027	4.0769	1.5853	-2.211*
자기공개	3.3430	1.3743	3.9385	1.6718	-2.258*
양육성	3.5894	1.4543	4.3692	1.7600	-2.803**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3. 부모의 통제 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외적통제(n=34)		내적통제(n=3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책임성	3.9779	1.1553	4.3750	1.1367	-1.382
개방성	3.7745	1.0273	4.3611	1.1581	-2.148*
동기성	3.2255	1.0468	4.3667	1.1756	-4.108***
호감성	3.3431	.9587	3.9667	1.1015	-2.421*
즉시성	3.8456	.8877	4.3583	1.0620	-2.104*
구체성	3.6373	.9297	4.7000	1.1492	-4.087***
성 과	4.0245	1.1750	4.7444	.9735	-2.648*
수용성	3.3529	.8366	4.3222	1.3086	-3.572**
직면성	3.5980	.9312	4.2000	1.1926	-2.264*
솔직성	3.5245	.9411	4.5222	1.0957	-3.919***
신뢰성	3.2549	.9177	4.4778	1.2183	-4.567***
인내성	3.4216	.8658	4.2889	1.1801	-3.379**
지시성	3.2157	1.0945	4.0778	1.3997	-2.761**
공감성	3.6471	.9025	4.2778	1.1714	-2.428*
전문성	3.5000	.9508	4.4333	1.0655	-3.704***
자기공개	3.2647	1.0110	4.0556	1.2289	-2.823**
양육성	3.7353	1.0566	4.5889	1.2277	-2.990**

주. *** $p < .001$, ** $p < .01$, * $p < .05$